

# 12·12 쿠데타 전두환의 후계자...5·18 법정서 내란죄 구속

### 6·29 선언으로 직선제 대통령...공산권과 수교 등 북방외교 앞장 여소야대로 조기 레임덕 '물태우' 오명...퇴임후 단죄로 은거생활

#### 노태우 살아온 길과 역사적 평가

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정권과 문민정부를 잇는 과도기의 대통령이었다. 엘리트 출신 장성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직 상승을 거듭하다 집권 후 조기 레임덕에 빠지고 퇴임 후 옥고를 거치는 등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영욕의 삶을 살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이던 12월12일 육사 동기생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신군부의 군권 전환을 주도하며 정치 무대 전면에 등장했다. 당시 10·26 사태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함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을 사전 모의했던 노 전 대통령은 거사 당일 쿠데타의 성패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휘하의 9사단 병력을 출동시켜 신군부의 군권 장악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다. 이를 계기로 전두환 5공 정권의 2인자로 급부상했다.

노 전 대통령은 5공이 출범한 1981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 전 대통령의 '후계자'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정부2장관을 시작으로 체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을 거쳐 1985년 집권당인 민주정의당 대표최고위원에 임명돼 명실상부한 권력의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 1987년 6월 10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체육관에서 차기 대통령직을 예약했지만 '노태

우 시대'를 만들어낸 계기는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사면복권' 등 8개 항이 담긴 '6·29 민주화 선언'이라는 정치적 승부수였다. 이 선언은 군사정권의 2인자였던 그를 일약 민주화 쟁취의 '조연'으로 탈바꿈시켰다. 그해 12월 치러진 직선제 대선에서 그는 민주화 진영의 호소에도 후보 단일화를 끝내 거부하고 독자 출마를 강행한 양김(兩金), 즉 김대중·김영삼 후보를 누르고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노 전 대통령은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제6공화국의 문을 열었다. 노태우 정권 5년은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 시대에서 벗어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민주화의 욕구가 분출한 시기였다. 대외적으로는 옛 소련의 해체로 미·소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정부가 '북방외교'로 공산권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외교의 지평을 넓혀나간 시기이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율의 리더십을 표방하며 점진적인 개혁 조치로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려 했지만, 취임 두 달 만에 집권 여당인 민정당의 총선 패배로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 놓이면서 정상적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1988년 제13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야권의 '5공 청산' 드라이브로 전 전 대통령이 백담사로 쫓겨가 은거하고,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간평가' 논란이 겹치면서 정국의 혼란이 가중됐다.

노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1990년 여당인 민정당과 야당인 김영삼(YS)의 통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사진은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영삼 민주당 총재(왼쪽), 김종필 공화당 총재(오른쪽)와 청와대에서 긴급 3자회담을 갖고 3당 합당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민주당, 김종필(JP)의 공화당을 합치는 기습적 '3당 합당'으로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을 탄생시켰다. 호남에 기반을 둔 김대중의 평민당을 에워싸는 '배타적 지역연대'이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을 총재로, YS를 대표로 내세운 민자당은 그러나 출신과 이념이 전혀 다른 정파끼리 합친 탓에 출범부터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삐걱거렸고, 끊임없는 계파 갈등은 노 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급속도로 위축시켰다. 결국 임기 중반부터 레임덕에 빠졌고,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비판 속에 '물태우'라는 원치 않는 별명도 얻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불운의 나날을 보냈다. 1995년 10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재임 중 4천100억 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12·12 사태의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소유예 처분했던 검찰이 두 사람을 법정에 세우게 한 계기가 됐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12·12 및 5·18 사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1종의 훈·포장을 박탈당하는 등 어두운 과거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연합뉴스

## 광주도시철도 2호선, 안전·편의성 두마리 토끼 잡는다

### 고무바퀴 방식 운행...타이어 펑크 감지장치 시스템 설치 분진·오염물질 유입 차단 '완전밀폐형 스크린도어' 설치

고무바퀴 방식으로 운행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시민 안전과 편의성 확보를 위해 '완전 밀폐형 스크린 도어'와 타이어 펑크 감지 장치 등을 포함한 고기능 '차량 시스템 안전 관리 장치'를 도입한다.

26일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차량의 탈선과 전복 방지를 위해 궤도 양측면에 안내가이드 레일 등 구조물을 설치한다. 또 안내륜(차량 좌우방향의 안내를 위해 설치한 수평방향 바퀴) 완충장치를 적용하고, 궤도와 안내륜에서 발생하는 좌우 진동과 충격을 흡수해 차량 내부로 전달되는 진동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호선 차량 타이어에는 펑크 감지장치를 설치한다. 종합관제실에서 타이어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비상시 차량 비상 제동과 서행 운행 등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타이어 펑크가 발생하더라도 차량기지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차륜도 타이어에 내장한다.

화재 대응 시스템도 최신 방식으로 설계했다. 차량 내·외장재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불연·난

연 재료를 사용하며 화재감지기, 비상통신설비, 비상조명장치 등을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고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재난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비를 위해 차량 내부에 미세먼지 저감장치(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이용 승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정거장도 공기정화장치시스템을 구축해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한편 완전 밀폐형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선로에서 유입되는 분진과 오염물질을 사전 차단하고, 승객 추락 사고 등이 불가능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대경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광주의 대중교통이 버스에서 도시철도 중심으로 전환돼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신 설비를 완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착공 이후 2년을 남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시정~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17km 6개 공구)의 평균 공정률은 30%대다. 지하 7~8m 만 뚫는 저심도 방식으로 진행중이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호선 2단계는 광주역~전남대~침단지구~수완지구~시정을 연결하는 20km 구간으로 2024년 완공 예정이다. 지선 개념의 3단계는 백운광장~진월동~효천역 4.8km로, 2025년 말 개통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임아 삽니다**  
3천평 이상  
지분환영. 010-6837-4700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  
**교환**  
하실 분. 010-3605-5000

## 국제농업박람회, 비즈니스 박람회 위상 과시

### 개막 6일만에 방문객 7만명 돌파... 389억원 수출협약

국제농업박람회가 개막 6일만에 방문객 7만을 돌파한 가운데 389억원 상당의 수출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며 비즈니스 박람회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국제농업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준보다 2배 강화하는 등 K방역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25일까지 누적 관람객 7만6000여명을 기록, 11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박람회장 현장에서는 개인식별 QR 출입증 발급, 전시관별 피플카운팅, 입장 인원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방역 관리 요원 배치, 수시 환기 및 살균 소독 등 치밀한 방역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요 행사를 온라인으로 참여하도록 누리집과 유튜브, SNS 등의 채널로 병행 추진해 언제 어디서든 2021 국제농업박람회를 만나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24일까지 4일간 진행된 '국제비즈니스데이'에선 수출 협약 및 계약 추진 실적이 389억원에 달했다.

전남도는 또 중국 직구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바이어를 초청해 117만9000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을 24일까지 2일간 진행했다. 상담회에 앞서 중국 수출전략 세미나를 통해 최근 중국 소비 패턴 동향과 중국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활용 방안 등을 기업에 소개했다.

상담회에는 중국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를 주도하는 바이어 15명과 도내 화장품, 농수산물품 20개 업체가 참여했다. 전남도는 상담 후 수출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 진건읍 재한 푸젠성 무역협회 회장 등을 초청해 지난 8월 바이어가 선정한 도내 우수제품 생산 20개 기업을 방문해 제품을 소개하고 생산시설을 견학한 바 있다.

전남도는 또 남도장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을 29일까지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판촉한다. 지난 25일 첫 진행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선 무안 유계농고구마 900세트가 전량 완판을 기록했다.

정호로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농업의 소중함과 미래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는 비즈니스 박람회로 치러 농가 소득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b>상가매매 (상무지구)</b>	<b>장성 토지 (매매 분양)</b>
1) 40평(전용) <b>2억5천</b> (용1억) 보1천 월100	<b>광주에서 20분(6M도로접)</b>
2) 60평(전용) <b>4억5천</b> (용3억) 보2천 월200	<b>장성댐 (호) 2분,</b>
3) 140평(분양) 시세 <b>9억</b> 매가 <b>7억</b> (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b>장성 IC. 5분</b>
(사무실 리모델링, 바, 유희,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b>총 1760평</b>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b>010-6670-9800</b>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b>010-6670-9800</b>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